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것을 서열로 따지면 세계 9위라고 한다. 나같이 유년 시절의 궁핍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실로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작지만 강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박찬호, 박세리, 조수미, 김연아, 신경숙 등이 여러 봉변에서 대한민국의 자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우수한 자질을 구비하고 있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사기에 ‘동이(東夷)는 어질고 선하다’고 했는데 참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하물며 조선은 정동(正東)의 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풍속이 예(禮)를 좋아하고 무(武)를 천하게 여겨 차라리 약할지 언정 포악하지 않으니 군자(君子)의 나라이다. 아! 이미 중국에 태어나지 못할진대 오직 동이(東夷)뿐인지도.”

동이(東夷)는 우리나라를 지칭하는데 “예를 좋아하고 무를 천하게 여기는” “군자의 나라”라고 했다. 물론 다산도 중국을 존중하는 시대적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우리가 적

임진년의 작은 소망

어도 문화적으로는 중국과 대등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이것은 다산의 다른 글을 읽으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문화강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올림픽 경기, 월드컵 경기,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이미 개최했고 여수에서는 세계 박람회가, 평창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개최된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

의 어두운 곳에서는 빙곤 계층이 아직도 존재하고 남북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으며 정치판은 비생산적인 싸움만 벌이고 있다.

새해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리면서 나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소망 하나를 가져본다. 신장된 국력에 걸맞은 품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사람의 품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품위를 드러내는 것이 ‘말’이다.

“말은 사상의 뜻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사상,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 인터넷의 바다

다. ‘나꼼수’의 진행자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 재판부의 주심 이상훈 대법관을 두고 “취재기자 이상훈과 암컷 쥐와 그 자식 쥐들을 만천하에 공개해 대한민국 땅에서 숨 쉬고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상훈 대법관은 조폭 광범위와 동일, 니 더러운 얼굴에 침을 뱉어주마”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같은 생각이라도 좀 더 뛰워 있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친구끼리 만나서 “네 아버지 잘 있니?”라 말하는 것과 “자네 춘부장에서 평안하신가?”라 말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방법의 차이로 인해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말을 거칠게 하면 그 사람의 인격도 거칠게 되고 거친 말을 뱉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나라의 국격(國格)이 거칠게 된다.

새해에는 인터넷에 의해 더러워진 말부터 정화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의 품위도 유지하고 국가의 품위도 유지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성균관대 명예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박재순

한국농업의 도전과 응전

고 소멸했다. 토인비는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명과 종교의 발달지는 척박하고 가혹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좋은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이다.

메기는 미꾸라지의 천적이다. 그러나 미꾸라지는 메기와 공존할 때 건강하고 싱싱하다. 미꾸라지만 있으면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 날렵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낙양해져 병들게 된다. 이것이 없는 환경에 사는 사슴 또한 건강하지 못하다.

인간의 문명이든 동물의 생태계든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없다면 그리고 도전에 응전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은 위기이자 도약과 발전,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지난해 한·미 FTA 국회비준 문제로 정국이 침체하게 대립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서명절차까지 마무리됐다. 이제 발효만을 앞두고 있다. FTA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피해를 입는 산업이 있다. 그럼에도 FTA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수출지향의 경제구조상, 그리고 세계경제의 거대한 물줄기가 개방의 문을 더욱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한국농업에 있어 심각하고 위험적인 도전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농업의 응전 방향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경쟁력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시장을 내주거나 둘째, 동등한 위치에서 시장을 주고 받거나 셋째, 경쟁력을 높여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빼앗길 것이라고만 예상하는 농산물 시장을 오히려 진출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도전에 맞선 응전의 형태에 따라 뵙보기

아니라 진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자본력과 규모화를 앞세운 미국 농산물 시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농식품 수출액의 증가에서도 알 수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였다. 2010년에는 58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4억 달러에서 7억5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FTA로 우리 시장을 내준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술과 자본집약적 농식품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농산물 수출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수출농가의 조직화와 규모화도 서둘러야 한다. 한·미 FTA는 심각한 도전이다. 그러나 외면하지 말자. 당당하게 응전하자. 그래야만 한국농업이 희망이 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고 하지 않았던가?

〈한국 농어촌공사 사장〉

나는 자리에 동석해 프랭크 라뤼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프랭크 라뤼는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과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2년 5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지켜보는 마음도 무겁고 착잡했다. 비록 지금은 무죄가 선고되고 원직 복귀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뻐할 수 만도 없는 노릇이다. 필자는 이 사건을 통해 공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비판적 표현 행위자를 ‘징계’와 ‘수사’를 통해 겁주고 위협하는 것이 가능한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심정으로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버텨왔다며 말했다. 그는 필자에게 늘 고맙다고 여러 번 감사를 표했지만 정작 고마운 것은 변호인이 필자 자신이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초심이 흔들리고 있는 ‘세속’의 변호

사인 필자에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더구나 덤으로 그의 정성스런 마음이 들판 담긴 땅콩까지 맛볼 수 있었으니 말이다.

〈변호사〉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2년 5개월에 걸친 그에 대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경찰의 기소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가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필자는 먼저 허위 사실 적시와 관련해 먼저 변론에 나섰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 유임청탁을 위한 대통령 친인척 및 지인들과의 골프 및 저녁모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박연차가 운영하는 재계 600위권의 지방중소기업인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이해성과 배경 등 각종 의혹은 이미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따라서 그가 한상을 전 청장의 이 같은 의혹을 토대로 강연활동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그를 변론했다.

필자는 비방에 대해서도 한상을 전 청장이 공인이며 그것도 고위 공직자라는 점, 그

의 글이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성과 사회성을 담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인 한상률이 국외로 도피성 외유 중이고 피고인인 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며 명예훼손의 소지가 스스로 자초한 사실이다.

필자는 다른 변호사와 함께 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공의소송으로 보고 변호에 나섰다. 민주주의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그가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한상을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뤼가 2010년 5월에 정부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다.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은 한국방문 기간 중에 이례적으로 광주를 방문했고, 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그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필자 등 변호인에게 전해왔다. 필자 등은 그를 데리고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만

받침대가 얼마나 안전성 있게 장착돼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안전도가 높은 머리 지지대가 장착된 차는 추돌이 되더라도 목 모양이 유지된다. 즉 추돌에 따른 충격이 목에 전달되는 순간 머리가 지지대와 닿는 시간이 짧을수록 목 부상이 덜하다. 반대로 머리가 그 지지대에 부딪히는 시간이 길수록 부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머리 지지대가 운전자와 뒷좌석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반면에 이런 안전의식이 달라진 시절

에 나온 구형 차는 머리 지지대가 시트와 거의 일직선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크다.

따라서 보조 지지대만 잘 사용해도 목부상 위험을 절반 아래로 줄일 수 있으므로 현재 본인이 운전하는 차의 구조가 바쁜 자세로 앉았을 때 머리 지지대와 6cm이상 벗어나 있는 구형차를 타고 있는 경우 보조 지지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추돌시 머리와 목부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음을 알아두자.

▲김만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구형차 머리 받침대에 보조지지대 설치…목 부상 위험 줄이자

가 되지 않지만 목은 중상을 입으면 큰 문제 가 된다. 그런데 이런 목 부상의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

추돌을 당했을 때 목 부상을 당하는 원리는 뒤에서 충격이 가해지면서 굽어 있던 목뼈가 곧게 퍼지기 때문이다. 부드럽게 퍼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물리적 충돌에 의해 급작스럽게 퍼지기 때문에 목부상을 입는 것이다.

심한 경우 앞쪽 인대는 늘어나고, 뒤쪽 인대는 짜부라들면서 손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상의 정도가 크나 작으나는 머리

시설

소통·화합 없이 국가안정 기할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새해 국정 운영의 두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서민 생활 안정을 제시했다. 먼저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면 경제회생을 지원하겠다는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 타결)’과 함께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기존의 대남정책 유지와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향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긴장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새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지난 친경자세는 북한을 자극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기에 대화의 문을 열어 ‘체찍’만이 아니라 ‘당근’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는 유연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권, 변화 갈망하는 민심 직시해야

19대 총선이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 대한 광주·전남 민심은 상당히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민 절반 이상이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4·11 총선에서 대안적인 물갈이와 함께 정치지형의 변화를 원하는 지역민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일보 등 전국 9개 대표 지방신문 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케이 임조사연구소(주)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2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총선·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9.9%로, 지지하겠다는 응답 32.6%를 크게 앞섰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불만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광주시민들의 ‘현역의원 비율’은 58.1%로, 충북 6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지지 비율은 21%로 가장 낮았다. 전남도민들도 ‘현역의원 비율’은 51.4%로 지지 비율 37.8%를 앞질렀다.

이번 광주·전남 지역민의 ‘현역의원 비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광주·전남 지역민 10명 중 5~6명이 현역의원 교체를 원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민들이 그만큼 현역의원을 불신하고, 활동도 탑자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어떤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투표할 것인가?’는 질문에 응답자의 50.2%가 후보들의 됨됨이를 보고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정당 31.5%, 후보 경력 11.5% 순이었다. 그동안 민주당 일색의 정치지형에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직시, 더 이상 특정 정당의 터를 빙자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민은 지역발전을 이끌 능력 있고, 참신한 정치인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無等鼓

최근 광주 대구의 중학교에서 빚어진 자살사건의 배후에는 아김없이 ‘일진’들이 있었다. 요즘 일진의 의미가 싸움 잘하는 학생으로 국한됐지만 선량한 학생들의 의식을 좇먹다는 점에서는 엄석대와 마찬가지다.

엄석대나 지금의 일진들은 교사가 자리를 비운 교실을 좇지우지한다. 교사들이 다음 수업을 위해 잠시 교무실로 돌아간 사이 교실은 곧바로 일진의 지배에 놓이게 된다. 이 시간을 틀타 일진은 학생들의 돈과 물건을 빼앗거나 폭행한다. 교사들의 시선이 사라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일진들의 횡포가 시작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엄석대의 비행이 하나둘씩 드러난다. 급기야 성적 조작이 불거져 엄석대는 자신을 따돌린다. 선생님도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을 몰라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진들은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관련 부처들은 사후방문으로 호들갑이다.

선량한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실의 엄석대들을 속아내는 일이 금물이다. 학생들의 일진들이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했다는 듯이 일진들의 횡포가 시작된다.

교실에서 엄석대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담임의 시선이 사라진 동안이었다. 위선에 따로 담임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거나 뒤집거나 몸을 뒤집거나 한다. 그리고는 굴종의 대가로 평화를 누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진들은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했다는 듯이 일진들이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했다는 들판 담긴 땅콩까지